

축 사

(2021 서남해안 세계 섬 포럼 축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완도군의회 허 궁 희 의장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서남해안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하고 섬 엑스포 개최 필요성과 유치 전략을 논의하는
「2021 서남해안 섬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2028 세계 섬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고 포럼을 준비해 주신 이한철 목포상공회의소
회장님과 유치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포럼을 주관해 주신 목포MBC 김영석 사장님을 비롯
한 관계자분들과 주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
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3천 개가 넘는 섬이 있으며, 이중 40%가 넘는
섬이 서남해안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섬에는 독특한 생태와 문화, 관광 자원이 넘쳐나고 고유
한 전통 음식 등이 잘 보존되어 그 가치가 대단히 높을 뿐
만 아니라 발전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비대면 힐링 공간으로 섬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언택트 관광지로 섬이 새롭게 조명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목포, 완도,新安, 진도 등 4개 시군이 공동 협력하여 섬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의 미래 발전 전략을 섬에서 찾고자 하는 오늘 서남해안 섬 포럼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도는 265개의 크고 작은 섬을 보유하고 있으며, 깨끗한 바다와 전국 최대 2,200여 종의 해양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우수한 해양자원인 해풍, 해수, 갯벌, 해조류 등을 활용하여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해양치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4개 시군이 협력하여 섬의 가치를 높여 상생 발전하고, 2028 세계 섬 엑스포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협력은 서남해안권이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섬에서 희망찬 미래를 열고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